

# '들불처럼 번지는 지역감염' 광주·전남 신규 확진자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신규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했다.

전남대병원 발 감염이 일상생활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확산되더니, 급기야 지역 주요 의료기관에서도 줄줄이 확진자가 나와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2시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8명, 전남 14명이다.

광주에서는 가족·지인간 접촉을 통한 전남대병원발 n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581번 확진자는 병원 내 첫 감염 사례였던 신경외과 전공의(546번

환자) 동료로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582-585번 등 4명의 신규 확진자는 전남대병원 입주업체 직원의 지인으로 확인됐다.

이어 585번 환자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588번 환자로 등록됐다. 588번 환자는 서구 모 초등학교 재학생이다.

전남대병원발 감염이 지인을 거쳐 가족간 감염으로 번진 셈이다.

서구 금호동에 사는 586번 환자는 전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587번 환자는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감염사례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전남은 집단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광주·순천·목포에서 또다시 확

## 전남대병원발 n차 감염 광범위 확산

### 의료기관 잇단 시설 폐쇄·집단 격리

### 순천·광양·목포도 동시다발적 확산

진자가 나왔다.

순천에서는 PC방 등 일상생활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1명 나왔다. 다만 전남 276·280번 환자로 분류된 순천시민 2명은 기존 감염원과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다.

광양에서는 기존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을 다녀간 손님 중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감염자 5명이 발생했다.

목포에서는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진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보호자의 지인 사이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281~283번 환자는 모두 전남대병원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전남 281번·282번 환자는 목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퇴원 환자의 2차 감염자다.

283번 환자는 목포기독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와 지인간 접촉을 통해 감염

된 것으로 추정된다.

285번 환자는 화순전남대병원 소속 간호사이며, 병원 관련 전수 검사를 통해 확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광주 31명 ▲전남 11명 ▲경기 1명 등 총 43명으로 늘었다.

전남 284·286번 환자는 아직 감염원을 알 수 없다. 특히 286번 환자는 순천에 사는 초등학생이다.

광주는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지역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고, 전남은 주요 4대 도시 모두 일상생활 내 가족·직장 간 전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전남대병원 본원에서 전공의가 처음 확진된 이후 화순전남대병원과 목포기독교병원, 순천중

양병원 등 지역 주요 의료기관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방역체계의 핵심인 의사·간호사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병원 일부 병동이 잇따라 시설 폐쇄되고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조치 되고 있다.

주요 의료기관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부하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감염원 불상' 확진자도 꾸준히 나와 '조용한 전파'가 현실화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격리 병상으로 옮겨 치료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들의 지역 내 동선·접촉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서선욱기자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반대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희회관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목포기독교·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2명 확진

전남 목포기독교병원에서 이어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일부가 폐쇄됐다.

18일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포기독교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간호사 1명과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2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전남283번, 285번으로 분류

됐으며 격리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83번 확진자는 전남대병원발 확진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사장과 친구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285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화순전남대병원 확진자 발생이후 실시한 전수검사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입원환자 700여명, 의료진과 외주업체 종사자 포함

18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 일부가 폐쇄조치됐다.

목포기독교병원은 응급실을 폐쇄조치하고 근무자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의료진 등 350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목포·박정수기자

## '코로나 감염' 광주 룸소주방 2곳...동선 은폐, 고발 검토

### 광주서 동선 축소 은폐 혐의로 고발된 인원 6건 10명

광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룸소주방 형태의 유흥주점이 2곳으로 늘면서 'n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룸소주방 방문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이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18일 광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상무지구 룸소주방 관련 확진자는 모두 15명에 이르고 있다. 관련된 업소는 2곳으로, 한 곳에서 11명, 나머지 한 곳에서 4명이 확진됐다. 이날 신규 확진된 광주 587번의 경우 두 번째 룸소주방 종업원의 지인이다.

감염자가 나온 두 업소는 상무지구

유흥가 내 룸소주방 밀집지역에 맞닿아 있는 건물 3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관련 확진자들 가운데 광주 536번에 주목하고 있다.

이 확진자는 상무지구 유흥주점발(發) 첫 확진자인 광주 528번과 지난 2일 남구의 한 감성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528번이 확진 판정된 바로 다음 날이다.

이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광주 536번의 유치원생 자녀, 지인, 지인의 유치원생 자녀까지 순차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11월2일 남구 호프집에서 528, 536번을 포함해 각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6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에 주목, 역학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광주 536번이 상무지구 내 또 다른 룸소주방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애초 동선 조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업소이고, 해당 업소 종사자 3명과 종사자인 지인 1명이 시차를 두고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광주 536번이 애초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김민정기자

## '사탕·커피 같은 마약' 50억대 밀반입·유통 일당 48명 검거

### 엑스터시, 졸피뎀 등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들여와

사탕 등으로 위장하거나 몸에 숨기는 수법으로 동남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사범 총 53명(밀반입 14명, 국내 판매책 14명, 투약자 25명) 중 48명을 검거, 이중 A씨 등 2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필로폰 990g, 합성대마 2kg, 엑스터시 778정, LSD 28장, 대마 8.7g, 졸피뎀 59정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공급책, 국내 밀반입책·판매책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사탕이나 일회용 커피로 위장하거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고 경찰은 전했다.

김미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